

2023 년 1 월 21 일 “(아바드의 사람들 3) 신뢰를 회복하다”(창 22:15-18)

에덴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회복했습니다. 신뢰는 아바드(창 2:15)의 삶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내적 자질입니다.

[1] 잃어버린 신뢰

아브라함은 75 세 때 갈대아 우르(현재 이라크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했고, 100 세에 이삭을 낳았으며, 115 세 정도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의 절정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아담이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성공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아담은 먹지 말라는 선악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영적 죽음).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뱀의 말에 따라 열매를 먹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깊은 의미를 알았습니다.

인생과 세상에는 바르게 신뢰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신뢰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2] 아브라함 안에서 회복된 신뢰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행동도 했습니다. 자기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12, 20 장), 약속하신 아들을 안 주신다고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반면 믿음과 용기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카 롯에게 목초지 선택권을 주고,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병 318명과 적진에 들어가 구출해 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중보자로 서기도 합니다.

이런 의로운 행동과 별개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세 번 나옵니다.

1. 창 15:6 자손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때
2. 롬 4:22 자녀를 낳을 수 없는 100 세에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을 때
3. 약 2:21 아들 이삭을 제단에 믿음으로 바칠 때

오늘 본문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멈추게 하며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축복을 맹세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뛰어난 도덕성이나 사회국가적으로 정의의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롭다함은 두 가지 영역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 i. 법정 개념 - 은혜 안에서 죄 없이 여겨준다는 뜻(이신칭의)
- ii. 관계성 개념: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와 행동을 신실하게 실행할 때 의롭다 하심(이행칭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신뢰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폭적으로 맡기고 힘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아담이 잃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아담은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꿈을 향했지만,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아들을 드리면 다시 살려서라도 돌려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보였습니다(히 11:19).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보여 준 믿음의 정점은 삶의 걸음 속에서 가꾸고 지켜온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바드의 삶은 신뢰를 쌓아가는 내적인 자질의 성장을 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앞으로 볼 성경 인물들이 아바드의 삶을 살아내게 한 내적 자질들을 살피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뢰와 같은 내적 자질의 충만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오늘 내용을 통해 아담이 잃은 것과 아브라함이 회복한 것을 정리하여 말씀해 보세요.
2.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울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어떤 축복이 열릴 것 같습니까?